HACHINOHE

0:43	숲과 같은 미술관을 만들자, 공원과 같은 미술관을 만들자는 식의 쉬운 개념은 솔직히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과는 다른 미술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0:53	역시 하치노헤시는 시민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건 지켜보면서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시민들이 미술관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단순히 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재미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3	그런 다양한 사람과 제작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미술관
1:24	게다가 그 활동 자체가 어쩌면 다른 현에서 온 사람이나 도쿄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1:36	그런 공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장 특징적인 자이언트 룸을 만들었습니다.
1:49	미술관은 지금까지는 비일상의 장소로 꾸며져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치노헤의 경우는 비일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공간으로 미술관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개실군이나 자이언트 룸 등 오히려 무대의 뒷모습이 드러나는 설계를 했습니다.
2:10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프로젝트가 되고,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이언트 룸 안에 스태프들이 회의 하는 공간이 있거나, 전시 동선 상에 일반 회의실이 있어 스태프들이 회의 하는 모습이 관람객에게 보이기도 하는 등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죠.
2:42	실내지만 광장 같기도 하고, 야외 거실 같기도 하고, 끝과 끝에서 전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늘 아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점에서 그 높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볼륨 스터디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3:04	″조용한 구역″이라는 곳에는 제대로 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활동을 하는 번화한 구역″과 ″조용한 구역″이 어떻게 잘 연계될 수 있는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한 것 같습니다.
3:22	북적거린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어도 그것은 그곳에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생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삼삼오오로 왔다가 다시 떠나가는 것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41	정적이 흐르는 곳에 전시회가 있을 수도 있고, 왁자지껄하게 떠들썩하게 놀고 있는 곳에 전시회가 있거나 강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선택지가 가득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하치노헤 시립미술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4:00	그런 일을 하려면 역시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소리를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건축을 많이 만드는 이와사키 가쓰야(岩崎克也)씨라는 닛켄셋케이(日建設計) 분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사람이, 그것도 전혀 다른 수업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죠. 그 때, 소리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것을 그에게 배웠습니다.
4:29	물리적인 볼륨의 크기나 마감재에서 받는 건축 내부 공간의 인상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이 정도 소리를 내도 괜찮겠구나'라는 소리 환경이 전혀 걱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는 공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1	이 3인에 더해 음향 설계자와 함께 도쿄에 있는 자이언트 룸과 비슷한 분위기의 장소를 돌아다니며 '여기는 소리가 잘 들리네', '여기는 말이 잘 안 들리네' 등 실제 장소에서 먼저 감각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5:08	자이언트 룸과 같은 큰 공간은 울림이 너무 커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치노헤의 경우 리셉션 직원, 감시원 분들에게도 굉장히 말하기 편한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보고 '여기는 좋네', '아, 그렇구나'라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5:32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사를 거듭한 결과, 자이언트 룸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어요.
5:48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조를 갖출 것인가 하는 점이 사실 엔지니어링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5:56	그 때 트러스라는 구조와 하이사이드 라이트를 겸한 트러스 밑에 커튼으로 구분하면 일단 3개로 구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6:09	커튼을 내리는 것도 꽤 효과적이고, 하이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빛을 방해하지 않도록 위쪽을 반투명하게 만들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프로젝트가) 출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6:24	반면, 개인실 그룹은 좀 더 '이 방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기능에 특화된 방이 몇 개 있습니다.
6:36	자이언트 룸과 개인실 군의 조합에 따라 전시를 색다르게 할 수 있고, 방을 다르게 조합해 강의를 하거나 워크샵은 또 다른 조합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개인실 그룹에서 하는 일이 자이언트 룸으로 튀어나오는 등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미술관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7:08	또 하나는 도시 속에서의 볼륨감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도시 안에서의 적절한 볼륨감이 중요했어요. 외부에서 봐도 알 수 있는 거대함, 그러면서도 도시 풍경에 비해 이 정도 비율로 억제되어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이 결정해 나갔습니다.
7:30	특히 미술관 건축은 사진작가가 구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찍었느냐에 따라 그 미술관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7:41	하지만 지금은 이미 SNS의 시대,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죠.

7:50	다양한 장면과 디테일이 점점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디테일과 소재를 바꿔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사진 구도가 정해지지 않도록, 이쪽도 찍고 저쪽도 찍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10	미술관 자체가 도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지요.
8:17	그래서 하치노헤 산샤다이사이(八戸三社大祭)의 루트나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곳에 미술관과 넓은 외곽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미술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8:31	'핫치'와 '하치노헤 북센터'의 존재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8:39	하치노헤 시는 꽤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꽤나 파고든, 독특한 말을 해도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8:49	이 하치노헤시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 하치노헤시이기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처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9:0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심하세요'라고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용법을 매일 개발해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9:27	개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패션쇼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31	'이 방에 이런 걸 넣어도 되나 싶은 물건을 넣어도 괜찮을 만큼 공간의 볼륨감과 포용력이 있어요. 미술관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하는 틀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9:53	미술관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이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9:57	하치노헤 시립미술관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시도해보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재미있거나 재미없거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성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미술관이 오히려 점점 더 더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